# ‘천만관광 임실시대’ 실현 첫발

## 군, 신년하례회 개최… ‘2025 임실방문의 해’ 군민 안녕·지역 발전 기원

임실군이 2025 임실방문의 해와 천만관광 실현을 위한 당찬 첫발을 내디뎠다.

군은 8일 임실치즈테마파크 아펜젤홀에서 새해를 맞아 심 민 군수와 장종민 군의장 등 관내 기관 및 사회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임실군민의 안녕과 임실군의 발전을 기원하고 함께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2025 임실방문의 해를 기념하여 새해 천만관광 임실시대 목표 실현을 위한 퍼포먼스를 통해 임실 군정의 최대 목표 달성에 의기투합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를 함께했다.

새해 인사말과 주요 내빈들의 축사, 새해 각오와 다짐 결의를 위한 케이크 절단식 순으로 진행된 이번 신년하례회는 2024년 임실군의 성과를 돌아보며, 2025년에는 더욱 큰 도약을 위한 다짐이 이어졌다.

군은 지난해 특색을 담은 사계절 축제로 전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큰 성공을 거뒀다는 평이다.

실제 지난해 3월 이틀간 열린 옥정호 벚꽃축제에 이어 5월에 3일간 개최된 오수의견문화제와 함께하는 임실N펫스타, 아이들의 여름방학 기간을 겨냥해 23일간 진행된 아쿠아페스티벌, 국화꽃과 함께 4일간 가을에 열린 대표 축제인 임실N치즈축제, 크리스마스 시즌에 5일간에 걸친 산타축제까지 계절별 릴레이 흥행 기록을 세웠다.

임실군은 8일 임실치즈테마파크 아펜젤홀에서 새해를 맞아 심 민 군수와 장종민 군의장 등 관내 기관 및 사회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임실군민의 안녕과 임실군의 발전을 기원하고 함께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특히 임실N치즈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대한민국 3대 축제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실제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임실군 생활 인구는 2018년에 498만명에서 2023년 853만명, 2024년에는 888만명으로 7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구 2만6천여명에 불과한 작은 농촌 임실군의 이 같은 관광객 급증세는 민선 6기부터 민선 8기까지 일관되게 관광정책을 추진해 온 심 민 군수의 강력한 추진력과 리더십, 남다른 열정이 큰 역할을 해냈다는 평이다.

전국 각지에서 임실군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지역 상권이 살아나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군은 이 같은 기세에 힘입어 올해는 천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옥정호와 치즈테마파크, 오수 세계명견테마랜드, 성수산, 사선대 등을 연계한 관광벨트를 확고히 구축하여 ‘관광중심지 임실’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는 각오다.

이와 함께 군은 올해 ‘미래를 향한 큰 그림’을 준비, 임실군이 나아갈 방향과 미래 10년을 이끌 ‘미래 발전 전략 마스터플랜’을 수립,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심 민 군수는 “2025년은 미래를 향한 큰 그림을 준비하고, 임실방문의 해를 성공시켜 천만관광 시대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임기 내에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봄에 장미꽃과 함께 임실N치즈축제를 개최하여, 여름 아쿠아페스티벌, 가을 국화꽃과 함께하는 임실N치즈축제, 겨울 산타축제로 완벽한 사계절 축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군정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최영일 순창군수, ‘발로 뛰는 행정’ 펼친다

## 320개 전체 마을 순회 방문… 주민 애로사항 청취·소통 행정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주민과의 소통행정을 이어온 최영일 순창군수가 2025년에도 새해 첫 발걸음을 군민과 함께한다.

특히, 민선 8기 3년 연속으로 시행하는 이번 마을방문은 지난해보다 3개 마을이 더 늘어난 320개 전체 마을로써, 소외될 수 있는 오지마을과 고령화 마을에 대해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는 등 한층 강화된 현장 중심 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1월 8일부터 2월 13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는 이번 마을방문은 각 마을의 주민들과 밀착 소통을 통해 불편사항, 현안사업,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최 군수는 현장에서 바로 해결 가능한 사안은 실무진과 논의해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한 사안은 정책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도로, 상하수도, 교통 등의 기초 인프라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고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해 총 581건의 건의사항 중 296건을 완료하고 60건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 143건은 중장기 과제로 분류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적인 건의사항 관리는 군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를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영일 군수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더욱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을방문은 단순한 현장 방문이 아닌 주민들과 함께 순창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건의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 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 전 시민 1인당 30만원 설 명절 전 지급키로

남원시가 탄핵 정국 및 장기화된 경기침체 속에서 고통받는 시민들의 민생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대책으로 전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설 명절 전에 지급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시민들이 어려울 때 시가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시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각계각층의 시민 의견수렴과 시의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을 긴급 편성했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 남원시에 주소를 둔 총 7만 6,801명(결혼이민자, 영주권자 포함)에게 1인당 30만원씩 제공되며, 남원사랑상품권 형태의 ‘선불카드’로 지급하며, 이번 민생안정지원금 232억원의 재원은 남원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최경식 남원시장의 강한 의지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충당했다.

지급일은 2025년 1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5부제(요일제)에 맞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설 명절 전 빠른 지급을 위해 읍면동 자체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5부제(요일제)는 출생년도 끝자리로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로, 지원금은 2025년 6월 30일까지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

한편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정책이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기 위한 조치로, 추경의 신속 처리 등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시의회에 감사하다”며,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명품농업대학 신입생 2월 10일까지 모집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는 지역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을 목표로 운영하는 ‘남원명품농업대학 신입생’을 오는 2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 제16기 명품농업대학은 총 4개 반 두 가지 과정으로, 일반과정인 포도반, 상추+토마토반, 한우반, 특별과정인 스마트팜 아카데미반에 총 95명을 모집한다.

남원명품농업대학은 농업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전문 교육과정을 통해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농업의 미래를 선도할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다. 이번 신입생 모집을 통해 새로운 농업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이들에게 많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과정은 농업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은 농업기술센터 2층, 지역별 농민상담소, 우편&팩스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고, 각 과정에 따라 세부적인 자격 요건과 준비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모집 공고를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군, 새해에도 애향장학금 기탁 잇따라

2025년 을사년 새해에도 임실군애향장학회(이사장 심민)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오수면 신기마을 양옥순 씨가 50만원, 한국치즈과학고 ‘배롱카페’ 동아리가 40만원을 지난 6일 임실군애향장학재단을 방문해 장학금을 전달했다.

먼저, 애향장학금을 전달한 양옥순 씨의 선행은 지난 2021년부터 매년 50만원씩 4년째 이어온 것으로 올해도 어김없이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열중해 꿈을 이루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탁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또한,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배롱카페는 2023년 창단된 창업동아리로, 학생들이 작년 12월경 교내 축제에서 음료와 디저트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 40만원을 지역 후배들의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태고자 10명의 회원들이 뜻을 모았다.

장학금을 전달받은 심 민 이사장은 “뜻깊은 장학금을 기탁해 주신 양옥순 님과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 학생 및 선생님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임실군 학생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지역 소식통

### 남원소방서, 설 명절 화재예방 안전대책 추진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예방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전통시장 및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 위험이 높은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실시되며, 주요 내용은 화재 취약 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 소방시설 작동 여부 확인, 비상구 폐쇄 및 불법 행위 단속 등이다.

특히,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전통시장 상인 자율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위한 안전하기 좋은 날 캠페인을 병행해 화재 예방 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김승현 서장은 “설 명절은 가족들이 모이는 뜻깊은 시기인 만큼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군, 상반기 행정인턴 사업 오리엔테이션 개최

순창군이 을사년 새해를 맞아 8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행정인턴 사업 오리엔테이션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근무 요령 교육과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친절 응대 교육이 함께 이루어졌다.

순창군의 행정인턴사업은 2020년 처음 시행된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5년에도 상·하반기에 걸쳐 각 25명씩 총 50명이 활동할 예정이다.

특히, 순창군은 지난해부터 참여 대상을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확대하였으며, 원거리 근무지 지정을 통해 동계, 복흥, 쌍치, 구림면 등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우선선발 범위를 넓혔다.

염기남 순창부군수는 “이번 행정인턴 경험이 앞으로의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각 근무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자신의 역량을 키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